

특별기고

조학행



예로부터 전남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고, 판소리와 목향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넓은 경작지와 리아스식 해안은 풍족한 농수산물을 생산했고 그 가운데 피어난 높은 정신문화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일어나는 충성심으로 이어지며 호국의 땅이라 불렸다.

지금으로부터 415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왜군의 발아래 짓밟히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전라좌수사로 있던 이순신 장군은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나라를 구해냈다.

호국의 바다가 부국의 바다로

다른 조선의 수군들이 변변한 전투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할 때 장군의 지휘아래 전라좌수영 민초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 지역과 나라를 지켰다. 이러한 장

군의 위상과 전라인들의 변함없는 나라사랑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 여수와 광양, 그 앞바다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광양만으로 집결, 퇴각하는 왜군들을 일

시에 섬멸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조·명(조선, 명나라)연합군을 이끌고 최후의 결전을 펼쳐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랑해전이고 전투가 펼쳐진 곳이 바로 지금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해상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업은 동북아를 류중심기지를 건설해 호남권 경제와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1998년 부두가 개장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대형선박의 접안이 자유로운 전면 수심 16m, 부두 길이 11km로 연간 1천245만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0까지 20개 선석, 2020년까지 34개 선석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 향후 200만평 규모의 항만배후부지는 세계적 물류기업을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의 변함없는 개발의지와 지역주민

해운항만 관계자들은 과거 허허벌판에서 신기루처럼 솟아오른 광양항의 웅장한 현재 모습에 역사적 변화와 의지를 확인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항만개발과 함께 다각적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조기에 자립형 항만으로 정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립형 항만 되도록 지원

특히 2012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관광 중심항만으로 재개발될 여수항과 더불어 광양만권은 여수석유화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리고 개발 중인 울촌 산단과 함께 항만배후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전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류와 정보산업, 관광, 문화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국영령의 거룩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 다시 한번 세계적 물류 및 관광 중심으로 역사 앞에 우뚝 솟기 위해 응비하고 있다. 지금 전남인은 여수항, 광양항을 통해 총무공의 호국의지가 부국의 꿈으로 피어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여수지방해안수상청장>

부국의 전진기지 '광양항'

의 한결같은 협력과 열의로 개장 9년째를 맞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작년 176만 TEU를 처리하며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의 11%를 담당했다. 항후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철도복선화 개량 등 수송망이 구축되면 광양만권 나아가 호남권과 대한민국의 물류와 경제,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설

전남 대형 현안사업 '표류' 정부 책임 크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키로 했던 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서남권종합개발사업, F1(포틀러 원) 등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7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현안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인은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정권 말 특유의 보신주의 및 무사안일하다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큰 게 벌이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할 정도다.

F1 특별법의 경우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정부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발벗고 나서서 지원함에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한다. 간척지 우선 사용 승인을 놓고선 농림부와 국무조정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서남권종합발전 특별법도 통과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공청회 한번 거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에 넘어갔다. 특히 다른 시·도 국회의원 등이 서남권특별법이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와 보신주의로는 낙후된 전남 서남권의 개발은 요원하다. 국가의 장기발전 전략에 따른 사업이라면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정당이 다른데다 벌여권이 분열되면서 현안사업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치권은 지역현안에 지속적 관심을 관에 보신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저성장 한국경제 성장동력 회복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우려가 없다는 점에 의미를 둘만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4%대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저성장은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성장률이 저하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내 GDP 평균 성장률은 5.4%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4.8%, 올 성장률을 4.5%로 가정할 때 2003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은 4.3%로 더 떨어진다. 성장률이 하향 추세에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4%대의 성장률이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우리 경제가 과거 개발연대시

고성장은 불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4%대의 저성장 추세로는 국내 노동력 흡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 새 취업자 수는 30만 명을 밑돌았다. 이는 청년실업자 양산 등 노동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내 노동력의 흡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5%대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 진입도 가능하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을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가율을 좀더 높이면 5%대 후반의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성장 잠재력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박홍근



명동의 상업 건축물들과 명동성당은 거리상으로 별 차이 없는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명동거리의 복잡하고 활기찬 상업적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명동성당에서 느끼지는 연속함과 장엄함, 차분함은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 불과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건축물의 기능과 디자인, 그 장소에서 만들어 내는 분위기나 환경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윈스턴 처칠은 1960년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프랑크 게리 등등. 그렇다하면 '좋은 건축·좋은 도시'의 생산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좋은 공간의 향유자인 시민들이다. 도시란 결국 도시민의 삶이 켜켜이 쌓인 것으로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건축을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건축과 도시 공간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가진 전문가, 즉 문화정책 기획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역

좋은 건축·좋은 도시 만들려면...

가 건축물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라고 바꿔 말하면, 좋은 건축이든 나쁜 건축이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든 건축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좋은 건축은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든다. 좋은 환경들이 모여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즉, 좋은 도시가 된다. 그렇다면 좋은 환경의 시작인 좋은 건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첫째, 기능과 목적을 잘 담은 건 건축의 힘으로 도시를 업그레이드시켜 관광명소가 된 사례는 많다. 바르셀로나의 건축물과 건축사 안토니오 가우디,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건축사

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행정기관이다. 그 책임자는 정치적·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도시전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 주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이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북돋워야 한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건축도시'의 기획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제된 조직이 아닌 유연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갖춘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하다.

"좋은 건축·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의 일이다. 공공의 합의하에 건축과 도시를 즐겁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먼저 의식 전환의 노력을 해야 하며,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해야 할 때다.

<주요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04년 12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돈 안되던 흙대...서민도 대접받는 은행태야

은행에 갈 때마다 불편하고 짜증이 난다. 동전이라도 교환하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 아니면 해주지 않고 돌려보낸다. 낮에 은행 창구를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다.

공과금 납부도 하나 뿐인 창구에서 해결해야 2만원의 전기세를 내는데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자동차 기계를 이용하려고 한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현금을 통장에 넣었다가 직불카드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고역을 예치하는 고객들에게는 VIP 대우를 해주는 데 대해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푼돈 모아 살아가는 서민들도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IMF때 다 쓰러져 외국으로 헐값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던 은행들을 살리자며 장통속에 있던 금을 팔았다 살린 게 누구인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백은희·순천시 아홍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기고

진선기



광주의 현대사는 격동과 눈물,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 피눈물 나는 이 드라마를 되돌려 보면 그 한가운데에 차디찬 '광주교도소'가 각인된다.

대표적인 재야인사였던 고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해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투옥됐고, 1980년 그 참혹했던 5월 이후에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고난의 수형생활을 했던 역사의 고단한 흔적이다.

그래서 광주시민 누구나 광주교도소

것이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2차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된 유대인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현대의 많은 관광객에게 역사적 교훈을 주면서 관광객 유인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대문구치소 경우 성역화사업을 펼쳐 일제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돼 모진 고문과 탄압을 받고 순국한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교도소를 민주평화공원으로

를 지나칠 때면 가슴 한 칸이 아러오고 울적 피눈물이 날 것처럼 속상한 것이 사이다.

이런 역사적 애환을 간직한 광주교도소가 없어진다고 한다. 시설 노후로 수년 전부터 광주 외곽이전을 추진했는데 조만간 건교부에서 복구 삼각동 일대를 교도소 신축 예정지역으로 결정해 지정고시하면 내년부터 보상작업에 들어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광주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복구 문흥동으로 이전한 후 40여 년의 문흥동 역사를 마치게 된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교정시설 대체 시설과 교관용도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의 교도소 터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여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구상대로 된다면 광주교도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 세대가 죽고나면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잊혀진 장소가 되고 말

경남 거제시에서도 민족사의 비극인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수용소를 그대로 재연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광주는 현대사의 피끓는 청춘의 도시였다. 광주교도소는 그 한가운데서 가장 아픈 부분을 감당했다. 광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 속의 애국충정의 정신, 독재에 항거한 대의정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도 광주 현대사의 한 상징인 '광주교도소'는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민주 평화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후 40여 년의 문흥동 역사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민주주의의 전당과 민주공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다.

현 광주교도소는 광주시의 동구 진입관문이자 5·18 국립묘지로 향하는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교도소를 현장 보존하고 이곳에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재현하는 일, 청소년 역사관을 건립해 민주성지의 참모습을 보여준다면, 광주는 훌륭한 현대사 역사교육 장소가 될 것이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전남 섬 주민들 식수·교통난 심각...정부 대책 서둘러야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고층 4층 세트가 있다고 한다. 교통·교육·의료·식수난을 말한다.

특히 식수의 오염이나 부족은 농촌보다 불편이 더 심한 듯하다.

전남 1천948개의 섬을 조사해 봤더니 전체 유인도 262개 가운데 식수 개발로 물 걱정이 없는 섬은 8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78개 섬은 아직도 빗물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도 불행에 가물어 비가 안올 경우 이마저 어려워 격일제

로 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섬 지역의 경우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다. 그런데 1일 1회 이상 여객선이 다니는 섬이 200개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작은 섬 60여개의 섬들은 아예 배가 다니지 않는다. 생필품을 사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위급 상황이 생기는 날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매년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無等鼓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두 나라, 중국과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부르는 용어가 있다. 중국(China)의 앞글자와 인도(India)의 뒷글자를 합성한 친디아(Chindia)가 그것. 지난 2004년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 세계 대전망'에서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했었으나 어느새 친숙한 용어가 됐다.

중국과 인도는 2003년 이후 각각 9%와 7%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8년이면 유럽 전체를, 2020년이면 미국을 앞설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한다. 인도 역시 2020년이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부

러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하다. 특히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인도는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가 경쟁하지 않고 협력체제를 갖출 경우,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중국의 한 연구기관이 이런 두 나라 사람들의 교제방식 차이를 규명해 관심을 끈다. 중국인은 만난 지 3분안에 호형호제하지만 이후 왕래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만나면 사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에도 향기가 난다.

이 연구기관은 "중국인들은 사귀는 범위가 인도인보다 훨씬 넓지만 인적자

산인 사회자본으로 바꾸는 능력이 인도인에 훨씬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사회자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도인이 중국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인도의 경제분석가인 수미타 고시가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부러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하다.

특히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인도는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나라가 경쟁하지 않고 협력체제를 갖출 경우, 그 영향력이 막강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친디아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 | www.kwangju.co.kr | |
|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 총무부 2200-511 (F A 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0118) |
| 편집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안국 2200-521 | 판매부 2200-551 |
| 정치부 2200-616 | 여론매체부 2200-628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1부 2200-618 | 사건부 2200-690 | 사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77) | 조사부 2200-570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